

왜 로마가톨릭을 복음화해야 하는가

김현덕 선교사님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다. 세계에서 가톨릭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1억 필리핀 복음화, 12억 가톨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잘 모르고 있다. 개신교의 대형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가톨릭의 정체를 먼저 바로 파악해야 한다. 어디에서 나온 종교이며, 무엇을 하는 종교인가?

1. 종교의 근원

성경을 보면, 종교의 근원은 창3:4-5에서 나온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나온다.

(1) 첫째, 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뒤집었다. 이 거짓말에서 나온 종교가 유희사상, 환생 같은 것을 믿는 불교, 힌두교 같은 종교들이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엡2:1). 그러나 종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2) 둘째,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주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만족하지 않을 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게 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 여러 종교가 신비한 지식을 알게 될 때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때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 그런 종교가 많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라고, 도를 가르쳐준다고 한다.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봐야 참된 진리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3) 셋째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추방당했다. 그 똑같은 생각을 인간에게 심은 것이다. 지금 뉴 에이지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는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다 신이면 신이 곧 인간이고, 지금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지지 않나. 사단이 한 거짓말이다. 피조물이 되지 말고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4) 넷째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성도는 이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옳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선악의 판단 주체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의 판단이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인류가 지속되면서 종교가 나오게 되었다.

2. 로마가톨릭의 정체

(1) 성경적으로 볼 때 제도화된 종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이다. 창10장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 사람이 나라를 건설한다. 시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창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 이것을 두고 연구자들은 제도적인 종교의 시초라고 말한다. 고대 사회는 짐승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던 때였다.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가 필요했다. 니므롯이 이 일을 하니, 사람들이 니므롯을 신격화, 절대화하게 된다. 자기를 신적인 절대 군주의 자리에 높이고,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아내 세미라미스는 여자는 달의 여신이라고

했다. 니므롯이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태양신의 환생이라 하여 담무스라 했다. 하늘의 여신, 환생한 태양신, 이런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 고대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자가 죽고,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하니, 이것을 여인의 후손이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나라가 생기고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탑을 쌓게 된다. 셈족의 문화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통치권,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주었지 않나? 이름을 내지는 것은, 원어로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자기가 만들고, 스스로 하늘에 도전하게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극치에 달한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생겨나는데, 고대 바벨론 종교, 태양신 종교가 발전해 가면서 흘러나가는데, 이것이 이집트 종교가 된다. 내용이 똑같다. 고대 이교들은 다 똑같다.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모자신 숭배의 내용이 똑같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 그리스에서는 아폴로, 가나안에서는 바알,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로마에서는 술이 된다. 바벨탑에서 언어는 갈라졌지만, 그 기억은 똑같으니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퍼져가는 것이다. 겔8:16에는 동쪽 태양을 숭배했다고 한다. 렘44:17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고 했다. 겔8:17에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했다. 이런 모양의 종교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간다. 특징을 보면, 다 절대군주제다. 왕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한다. 로마도 황제가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왕이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 통치의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한다. 여러 우상 종교, 여러 형상과 신을 섬기면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2) 이런 고대 바벨론 종교가 퍼져 있다가 부활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 갔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다섯 개의 주요 교회가 세워진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어가게 되는데, 태양을 받지 못하니가 평균 신장이 120, 130cm에 불과했다고 한다. 빛을 못 받으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토속신앙과 종교가 있었지만 이것을 제국은 다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핍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제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의 통합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밑으로 종교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당시 로마의 평민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를 믿었고, 로마 귀족들은 이집트의 신비 종교에 심취했으며, 황제는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그 신앙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복잡하니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를 합치기 시작한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 기독교의 성직자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한다. 병역 면제, 세금 면제, 법정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이때부터 종교의 혼합이 벌어진다.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세례를 받았고, 자신을 콘티팩스 막시무스, 최고제사장의 타이틀을 여전히 가진 채 교회를 장악했으며, 스스로를 Bishop,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높였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교도를 개종시키다 보니까 교회에 이방인의 풍습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교회 감독들이 이방 제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 것이다. 지금도 교황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 태양신의 모양과 똑같다. 성당에도, 천주교의 벽화에도, 가톨릭의 곳곳에는 태양 무늬가 많다. 기독교는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지 않나. 이것이 기독교에 이교도 문화가 들어온 증거다. 오벨리스크는 무엇인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석상들이다. 이집트에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고, 그 동생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서 토막을 내어 여기저기에 버렸다. 그런데 오시리스의 부인 이시스가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매다가, 그의 성기를 발견한다. 그 성기와 성교를 해서 낳은 아이가 하늘의 신인 호루스다. 그 성기가 바로 오벨리스크이고,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돔이다. 그래서 돔과 오벨리스크는 같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한 쌍이 워싱턴에 있고, 두 번째로 큰 것은 로마 바티칸에 있다. 심지어 이집

트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 돔 맞은편에 오벨리스크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교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됨으로써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긴 것이다. 모자신의 형상을 보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원형이다. 옆을 보면 이시스와 호루스, 로마에서 포르투나와 주피터, 인도에서 데바키와 크리쉬나, 중국의 성모와 아이, 그리고 천주교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다. 희한하게도 천주교 국가에서 보는 예수는 전부 힘 없는 아가다. 머리 뒤에 빛나는 후광은 예수님 것은 작고 마리아의 것은 크고 두껍다.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 관에 누워있는 예수 뿐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무의식 중에 그런 이미지를 계속 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 천주교다.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성자라 하는 한 사람이 곧 환상에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다음 옆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갔더니 마리아가 웃고 있더라고 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화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마리아가 자기 가슴을 예수님께 보여줘서 예수님의 화가 풀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교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다.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다. 태양신 숭배, 모자신 숭배, 성인 사상 같은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 333년부터는 콘스탄티누스가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 로마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38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폰티팩스 막시무스의 칭호도 로마 황제들에게 대대로 내려져온 칭호였다. 그런데 이 칭호가 지금 교황에게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교황을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싶으면 폰티팩스라고 치면 된다. 고대 최고 승원장들의 타이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웠던 그 종교가 이교도들에게 퍼져 있다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드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가톨릭의 배경과 역사가 이렇다.

3. 로마 가톨릭의 종교통합운동 전략

(1) 그런데 이 가톨릭 종교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톨릭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안에 와서 7성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받기는 힘들니까 연옥을 만들어 놓았다. 가톨릭의 죄 용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용서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서 치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가는 곳이 연옥이다. 그 연옥에서 대가를 다 치러야 겨우 천국에 간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낸다.

(2)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계몽주의가 생겨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강압적 방식에 반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1962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부터 천주교는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권위주의적, 강압적 방향 대신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제2차 바티칸 회의는 현재까지는 마지막 공의회인데, 거기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를 만든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타종교인이지만, 태생적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잘 몰랐어도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개념을 확 넓혀 버렸다.

(3) 그때부터 가톨릭이 종교통합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지금 WCC가 하고 있는 운동이다. 그 배후에는 가톨릭이 있다. WCC의 역사와 로마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행보는 정확히 겹쳐지고 있다. 배후 조종자가 가톨릭인 것이다. 교황은 이제 대놓고 말한다. 1985년부터, 무슬림과 천주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모임을 시작했다. 가톨릭 밑에는 조직들이 있는데, 교황청 직할의 조직으로 종교평화를 시도하는 조직들이 갖춰져 있다. 종교 연합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1960년부터 교황청 밑에 SPCU라는 종교 연합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고, WCC 3차 총회부터 참관인을 파견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WCC에

이제 신앙과 직제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10%는 가톨릭 사람들이 이미 붙잡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계속 이 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혔는데, 필리핀에 왔더니 1만 명 들어갈 광장에 700만 명이 모였다. 화장실도 갈 수 없으니까 기저귀를 차고 700만 명이 모인 것이다. 가는 곳마다 막강한 영향력과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종교통합회의를 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 성소수자들이 전부 교황을 좋아하고 아이콘으로 삼는다. 이렇게 문화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더 자세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는 고대 바벨론의 우상 종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종교가 이렇게 이어져왔음을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멸망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와 같은 종교, 같은 단체가 전혀 아니다. 나이키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체가 누구일까? 아디다스가 아니다. 나이키, 니케 같은 단체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톨릭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겉보기로는 같이 예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과 아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은 이미 가톨릭 문화권이며, 전통이고, 가족의 문화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어려울 때마다 인자한 마리아상을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가톨릭은 신학으로 이길 수 없다. 모든 분야를 다 신학으로 만들어 놓았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다. 이것이 약하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도덕교육 대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 교리와 성경을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때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다. 개종하는 아이들도 많다. 4학년부터는 말씀, 기도, 전도를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 교회에서만 1주일에 한 번 해서 바꿀 수가 없다. 학교에서 과제를 주고 리포트를 쓰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 아이들이 대학으로, 직장으로 가면서 현장에 복음 가지고 깃발을 드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다.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개신교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미 가톨릭은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내년엔 교황이 비텐베르크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가서 개신교에 사과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밝혔다. 5천만에서 6천만 명을 종교의 이름으로 죽였던 것을 사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교회 맞은편에는 아테네오라는 예수회 신학교가 있다. 그분들도 물어보면 루터가 잘 했다고 말한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교황이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WCC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시대는 가톨릭과 뉴 에이지 사상이 같이 나가고 있다. 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후대들이 휩쓸려 나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심어야 한다.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런 응답을 받는 참사랑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가톨릭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필리핀의 바티칸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지역에 가톨릭 수도원만 20곳이 있다.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 가톨릭이 너무 견고하니까 복음으로 때려도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루터처럼,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인물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실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불어닥칠 종교통합운동, 연합, 평화, 통합, 이런 좋은 말로 현혹하는 운동에 속지 말고, 이 지역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만 전달하는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